

## I-2. Nonsurgical therapy를 통한 Drug-induced gingival hyperplasia의 치료

박기영<sup>1</sup>, 김성조, 짝점일, 이주연<sup>2</sup>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sup>1</sup>발표자, <sup>2</sup>지도교수)

### Background

Gingival hyperplasia는 내적, 외적인 인자들과 치주조직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치은의 변형상태이다. 그 중 drug-induced gingival hyperplasia는 크게 세 개 그룹의 약물들 -면역억제제, calcium channel blocker, 항경련제- 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hyperplasia는 plaque과 같은 local factor의 존재시 더 심화될 수 있다. Gingival hyperplasia는 양약의 순, 협측 치간유두뿐 아니라 상악 대구치, 소구치의 구개측 및 원심측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변형된 치은은 비침미적이며, pocket을 형성하여 치주질환을 심화시키고 저작시 기능적인 장애를 야기한다.

약물에 의한 치은비대의 이상적인 치료는 원인 약물의 대체와 철저한 plaque control에 의한 local factor의 제거이다. 약물 대체와 plaque control로도 완전한 개선이 되지 않을 시는 외과적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nonsurgical therapy를 통해 치료된 drug-induced gingival hyperplasia 환자의 3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 Method & Material

고혈압의 medical history를 가진 3명의 환자들 모두 nifedipine 복용에 의한 전악의 gingival hyperplasia를 나타내고 있었다. 내과에 의뢰하여 원인 약물을 대체하였고, 전악에 걸친 subgingival scaling & root planing 시행하였다. 치료 종료 후 gingival hyperplasia는 해소되었고 더 이상의 외과적 치료는 필요치 않았다.

### Result & Conclusion

본 3개 증례 모두에서 약물 대체 및 치주 치료에 의해 gingival hyperplasia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의해 재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증례들은 원인 약물 대체 및 철저한 plaque control은 외과적 치료 없이도 drug-induced hyperplasia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